

“전남지역 석탑의 효시는 750년경 화엄사 4사자3층석탑”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논문서 주장
전득염교수, 광주박물관 학술대회서

전남지역 석탑 효시는 750년경에 건립된 구례 화엄사 4사자3층석탑(국보 제35호)이며, 통일신라시대 전남은 영산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석탑이 출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득염 전남대 석좌교수가 12일 오후 2시 광주박물관이 주최하는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현장과 전망’ 학술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논문에서 드러났다.

전 교수는 ‘전남지역 석탑의 출현과 양식적 특징’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화엄사 4사자3층석탑은 불교가 도입된 지 350년가량 지난 시기”라며 “전남에는 삼국시대의 석탑은 없고 통일신라시대의 조형(彫形)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화엄사 4사자3층석탑 이후의 석탑으로는 광주 지산동 5층석탑과 대흥사 3층석탑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백제시대에는 전남이 백제 영토임에도 석탑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관도 세력인 마한 세력 영향으로 불교를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 교수는 “통일신라시대 전남지역 석탑은 영산강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한 토착성을 지닌 용관도 분포지역에서 백제와 불교문화라는 이질적 요소가 쉽게 도입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시대 들어서는 전남의 석탑에 백제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정림사지 5층석탑을 모방한 백제전형양식의 석탑들이 나타나는데 월남사지 3층석탑과 운주사모전석탑이 그러한 예다. (모전석탑은 벽돌모양으로 쌓은 탑이다)

특히 전 교수는 “운주사의 석탑은 한 장소에 다양한 모습의 석탑, 원형석탑과 모전석탑이 나타나고 있다”며 “종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석탑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8세기 이후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전남의 석탑 출현 양상을 고찰하고 총 81기의 양식적 특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선종 광주시 문화재전문위원이 ‘실상사지’와 수철화상비문 판독 100년’ 주제로 발표할한다. 정 위원은 수철화상비문을 소개하고 비 건립과 중건 연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전남도 이계표 문화재위원이 ‘조선 후기 송광사 풍암 영각의 건립과 승백’을 주제로 풍암계 고승의 계보에 대해 발표하며, 최성렬 조선대 명예교수는 조선 말기 화원 석용 철유가 그린 ‘나주 다보사 대웅전 외벽화와 그 유사 사례’를 주제로, 제작 연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엄사 4사자3층석탑(뒤쪽) <구례군 제공>



한희원 작가의 귀국전 ‘한희원의 이방인의 소묘’전이 오는 7월7일까지 복합문화공간 김넛과에서 열린다.

한희원 ‘이방인의 소묘’전 개막

시화집 출간 기념...그림 등 7월7일까지 김넛과

전시장에 걸린 건 조지아공화국의 고도(古都) 트빌리시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이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와 마음의 슬렁임까지 그대로 담긴 작품들이기도 하다.

지난해 10개월간 트빌리시에서 머물며 작업을 해 온 한희원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한희원의 이방인의 소묘’전이 11일 복합문화공간 김넛과(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 13)에서 개막했다. 오는 7월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현지서 작업했던 25호 크기 300여점의 작품과 광주에 돌아와 작업한 150호 작품 등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재수생 시절부터 오랫동안 시를 써 온 한 작가의 생애 첫 책인 시화집 ‘이방인의 소묘-트빌리시에서 보낸 영혼의 일기’(코리아 books)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290여페이지 분량의 시화집에는 ‘마르타니쉬빌리의 밤’, ‘부칠 수 없는 편지’, ‘주머니에 든 별 몇 개’, ‘비 내리는 날 자바하시빌라’ 등 외국에서 쓴 시 40편, 지금까지 쓴 시 49편 등 89여편과 그림 70점이 실렸다.

한 작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방인으로 살았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힘을 얻었다.

이번 전시작들은 생애 처음, 아크릴로 작업한 작품들이다. 건조 시간이 빠르고 짙은 색감을 보여주는 아크릴을 활용해 나이프로 찍어바르고, 뿌리고, 철심으로 긁는 등 다양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작 중에는 아코디언을 켜는 늙은 할아버지, 가터를 치는 청년, 춤을 추는 동네 사람들,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 등 다양한 인물들이 눈에 띈다. 민중미술 작업을 하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인물을 그리지 않았던 한 작가는 현지에서 만난 이들에게서 느낀 ‘인생’을 표현하고 싶어 인물에 몰두했다. 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을 사용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시 기간 중인 오는 7월 3일 오후 7시에는 김넛과 2층 공연장에서 한 작가의 시에 작곡가 한보리가 곡을 붙인 ‘시노래’를 만나는, ‘음유시인 한보리와 한희원 시의 만남’ 행사도 열린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보리 작곡가, 메조 소프라노 진진, 오영목, 나무)가 함께 한다.

월-토 오전11시-오후 6시, 일 오전11시-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행가방 속 만화경 같은 인간 세상

정숙영 초대전, 7월 5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The life of a travel bag

서양화가 정숙영 작가의 작품 모티브 중 하나는 ‘여행 가방’이다. 그 가방은 작가에 따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오감에서 체험한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저장할 수 있는 사물’이기도 하다.

정숙영 작가 초대전이 오는 7월 5일까지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용) 1동 CNUH갤러리에서 열린다. ‘여행가방 속의 삶-삶의 은유와 치유의 여행 가방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여행가방을 통한 다양한 삶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여행가방의 삶(The life of a travel bag)’ 시리즈는 분주히 움직이는 삶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가방을 끌고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을 슬하게 보여준다. 자신이 인생이 담긴 듯한, 또는 새로운 인생을 담으려는 듯한 다양한 가방을 갖고 분주히 움직이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인간의 욕망과 희망도 읽힌다. 또 다른 ‘Moving

image’ 시리즈는 외파로 떨어진 여행가방과 인간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동과 보관을 반복하는 여행가방은 정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은유하며, 여행가방 속에서 만화경 같은 인간세상을 그려내 보고 싶다. 인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꿈을 꾸는다”고 작품 배경을 설명했다.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달 지역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5월 ‘나와라 오바!’

극단 토박이, 15~18일 민들레소극장



“시간이 흘러서 아픔은 잊혀진다고 남들은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극단 토박이가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새 오월극 5월, 님을 위한 노래 ‘나와라 오바!’를 선보인다. 15·18일 오후 7시 30분 민들레소극장.

‘나와라 오바!’는 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만들어진 민중가요들을 통해 노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노래가 주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참된 뜻을 후세대들에게 계승·발전시키고자 기획됐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재래시장을 무대로 펼쳐지며 과거와 현재가 적절하게 섞이는 교차 진행방식으로 공연된다. 70·80년대 대중가요와 민중가요, 현재의 빠르고 경쾌한 노래 등 다양한 노래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박정윤이 연출을 맡았고 음악은 기춘희가, 춤은 춤추는 나무(강혜림·김정훈)가 담당한다. 진행은 나창진이 하며 임혜정·송은정·강중원·박정운·고영욱·이종경·윤재원이 출연한다. 사전 전화 예약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2-6280. /전은재 기자 ej6621@

‘월드 오브 다크나이트’

극단 까치놀이, 12~14일 서구문화센터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의 좌충우돌 뮤지컬 도전기를 소재로 한 연극이 열린다.

극단 까치놀이(대표 이영민)이 12·14일(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연극 ‘월드 오브 다크나이트’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연극인들의 파업과 시위로 불황에 빠진 대학로 거리 ‘도깨비 나이트클럽’의 직원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뮤지컬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연극배우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일상을 따듯한 시선으로 그려내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이날 공연은 이영민 대표가 연출을 맡고 배우 강원미·이환의·박수연·강현준이 출연한다.

극단 까치놀은 오는 10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0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 초연작품 ‘나두야 간다’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무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